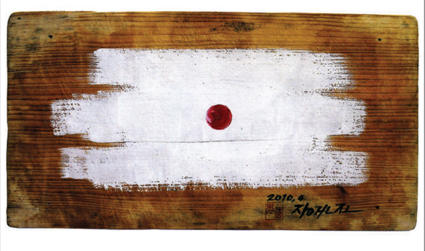
불자 화백 장건조 씨 '우주형상' 전


장건조 作 '어머니의 마음'

불자 화백 장건조 씨의 '우주형상(宇宙形象)' 전이 6월 16일~21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소전시실에서 열린다. 작가는 6년간 참선의 경험에서 얻은 '어머니의 마음' '우주' '정' 등의 작품 27점을 선보인다.

천주교 신자였던 장 화백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6년전 불교에 입문 계룡산 무상사, 부산 해운정사 등에서 참선정진을 해왔다. 특히 해운정사에서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에게 화두를 받았다. '부모님 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이던고' 이 화두는 그의 작품 세계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 인간의 순수한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또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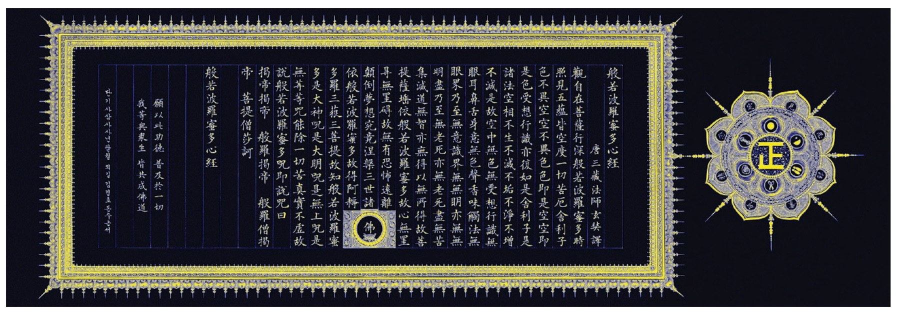
"30년이 넘은 해운정사의 빨래판, 도마, 의자 등을 주워 작품을 만들어 봤어요. 점은 우주이자 곧 제 근원을 말하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은 빨래판과 도마로 표현해보았습니다. 이번 작품 활동을 통해 제 생명의 시작인 어머니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입대한 아들에게 매주 그림 편지를 보내 화제가 되기도 한 장건조 화백. 그는 오늘도 참선 화두를 통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넓혀 가고 있었다. (051)752-2545

정혜숙 기자

미국 가는 법사리 장엄의 결정체 '사경'

제9회 사경연구회원전… 6월 13일~26일 LA 한국문화원서


김경호作 '전통사경과 성경사경, 코란사경, 만다라의 대화·1'

한국의 전통사경이 미국 LA를 찾는다. 한국사경연구회와 LA한국문화원은 로스엔젤레스 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에서 6월 13일~26일 제9회 사경연구회원전 '법사리 장엄의 결정체, 사경' 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경호 작가의 제자 32명의 47점 작품이 선보인다. 만다라사경, 공필사경, 자수사경, 영자사경, 보탑사경 등의 다양한 전통사경을 만날 수 있다.

김경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찬조작품으로 '전통사경과 성경사경, 코란사경, 만다라의 대화·1' 과 '감지금니 아미타경' 을 선보인다. 6월 21일 오전 11시에는 '한국 전통사경의 세계사적 의의와 가치' 에 대한 특강 및 전통 금니사경 제작 시연회도 연다.

정혜숙 기자

서울국제도서전… 조정래·은희경 초대

올해로 20회를 맞는 '서울국제도서전' 이 '책으로 만나는 세상, 책으로 꿈꾸는 미래' 라는 주제로 6월 18일~22일 5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국내외 총 21개국 출판사가 참여하며, 행사에는 아동도서를 비롯한 인문사회, 과학, 문학, 예술, 철학 등 각 분야의 다양한 도서가 소개된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저자와의 대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서울국제도서전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저자와의 대화' 는 매년 영향력 있는 유명 작가들이 참여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독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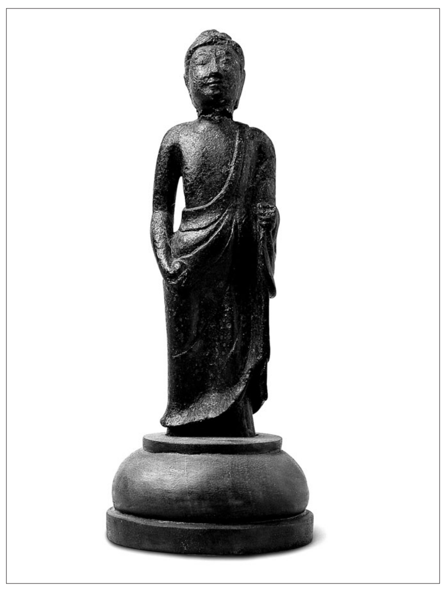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는 불자 작가인 조정래, 은희경을 비롯해 성석제, 윤대녕, 김탁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참여한다. 또한 시인 최영미, 신경림 및 류군, 요조와 같은 산문·에세이 분야의 작가도 참여한다. 이번 '저자와의 대화' 는 신간에 대한 에피소드는 물론 작가와 독자 사이의 문학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혜숙 기자

치유와 염원의 상징 '약사불의 세계'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7월 13일까지

연꽃좌대 빼어난 도동 출토 약사불
곡선의 美 황룡사지 약사불 등
중생구제 의미 담은 작품 한자리에


금동약사불입상, 경주 황룡사지 출토(삼국시대 신라 7세기)

금동약사불입상, 대구 도동 출토(통일신라 8세기)

약사불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열두 가지 큰 서원(十二大願)을 세웠다. 질병을 치유하고 수명을 연장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원이 그 중 하나다. 그래서 약사불은 대의왕불(大醫王佛)이라고도 부른다. 중생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의사 부처님이란 뜻이다. 나아가 어리석음을 뜻하는 무지(無知)의 병까지 고쳐준다고 했다. 때문에 약사불은 치유와 염원의 상징이 되었다. 병을 낫게 하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약사불에 대한 신앙은 널리 퍼졌다. 그리고 수많은 약사불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7월 13일까지 '치유와 염원의 상징, 약사불의 세계' 를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 1층 로비에서 연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모두 튼튼히 오래 사는 것을 바란다. 요즘 유행하는 '힐링(치유)' 이란 말이 이를 반영한다. 오늘날처럼 의료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종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교의 경우 그 대표적 신앙의 대상으로 약사불이라는 부처님이 존재한다. 이번 전시는 약사불의 의미와 시대적 양식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시 취지를 전했다.

약사불은 한쪽 손에 약이 담긴 그릇을 상징하는 물건을 들고 있는데, 뚜껑이 있는 합(盒)이나 뚜껑이 없는 단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때로는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둥근 구슬인 보주(寶珠)로 표현되기도 한다. 7세기에는 오른손에 보주를 들고 서 있는 약사불이 유행하였으며, 8세기 이후에는 서 있는 약사불과 함께 앉아 있는 약사불도 많이 조성됐다. 앉아 있는 약사불의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이나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시무외인(施無畏印)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모두 왼손 바닥 위에는 약그릇이 올려져 있어 다른 불상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경주 황룡사지(삼국시대 신라 7세기) △경주 진현동(통일신라 8세기) △대구 도동(통일신라 8세기) △경주 월성 방내리(통일신라 9세기) 등에서 출토된 다양한 금동약사불입상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대구 도동 출토 통일신라 8세기 금동약사불입상은 고요히 명상에 잠긴 듯한 차분한 얼굴 표정이 보는 이에게 편안한 인상을 준다. 신체의 표현도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빼어나며 발아래의 연꽃대좌가 잘 남아 있다. 연꽃대좌는 크게 3단으로 이루어졌다. 맨 아래쪽 받침에는 흔히 안상(眼象)으로 불리는 장식 구멍이 뚫려 있다. 그 위로는 끝이 살짝 올라간 넓적한 연꽃잎이, 다시 그 위로 단정한 모양의 연꽃잎이 각각 8개씩 새겨져 있다. 연꽃잎의 표현이 과장되지 않아 통일신라 불상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경주 황룡사지 출토 삼국시대 7세기 금동약사불입상은 왼손에 약그릇을 든 일반적인 약사불입상과 달리,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둥근 보주와 같은 지물을 들고 있다. 왼쪽 다리에 힘을 빼서 무릎을 굽히고 오른쪽 엉덩이를 내민 자연스러운 곡선 자세는 삼국시대의 불입상에서는 보기 드문 작품으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불상이었음에 분명하다. 우리나라 약사불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도 평가되고 있다.

경주박물관 서유리 학예연구사는 "전시되는 약사불들은 높이 10cm 안팎으로 작은 편에 속한다. 당시에 이 약사불들을 어떤 방식으로 모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집 안에 모시며 소원을 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054)740-754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종교계 멘토 3인방 지혜의 메시지 전한다

tvN 특집토크쇼 '종교인들의 세상이야기'

법현 스님이 출연하는 tvN 특집 토크쇼 '종교인들의 세상이야기' 가 6월 12일 저녁 6시 50분에 방송된다. 사진 왼쪽부터 인명진 목사, 법현 스님, 홍창진 신부

종교계 멘토 3인방이 전하는 지혜의 메시지가 안방극장을 찾아간다. tvN이 준비한 특집 토크쇼 '종교인들의 세상이야기' 가 6월 12일 저녁 6시 50분에 방송된다. 종교계 멘토 3인방인 '열린 스님' 법현 스님, '포청천 목사' 인명진 목사, '괴짜 신부' 홍창진 신부가 출연 종교를 뛰어넘는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tvN '종교인들의 세상이야기' 는 각기 다른 종교의 대표 얼굴들이 모여 대한민국이 행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3부작 토크쇼로 이번이 세 번째 방송이다. 3명의 멘토들은 시민들의 소소한 질문부터 심각한 고민까지 촬영 현장에서 함께 듣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5월 29일 첫 방송을 시작해 6월 5일 방송에 이어 6월 12일 3부에서는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전파를 탄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와 개그우먼 김숙이 MC로 나서 프로그램을 이끈다.

패널로 참여한 종교계 멘토 3인방은 평소에도 종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몸소 실천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쓴 소리도 아끼지 않는 시대의 멘토들이다. 특히, 불교생명윤리협회 집행위원이자 태고종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은 '쉬운 불교' 를 모토로 시장 한복판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위해 마음공부를 가르쳐왔다.

tvN은 "시민과 종교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이 사회의 자화상과 현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BTN '21세기 부루나, 붓다의 제자들' 첫방

BTN 이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들을 만나는 '21세기 부루나, 붓다의 제자들' 을 개설했다.

BTN 은 "21세기 부루나 존자들은 단순히 법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군인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계층을 공략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미디어시대에 걸맞는 문화포교까지 포교의 형태도 날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묵묵히 전법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만나 진솔한 포교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며 방송 취지를 전했다.

6월 10일 첫방송의 게스트로는 불교카툰신문 만만한뉴스팀의 지찬 스님, 양경수 작가가 출연한다. 방송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재방송은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금요일 오전 7시 30분이다.

정혜숙 기자